

2월 광고경기 전월 대비 호전 전망

2월 국내 광고경기는 전월인 1월에 비해 호전될 전망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이후 KOBACO)는 국내 4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광고경기에측지수(KAI)를 조사한 결과 2월 예측지수가 119.0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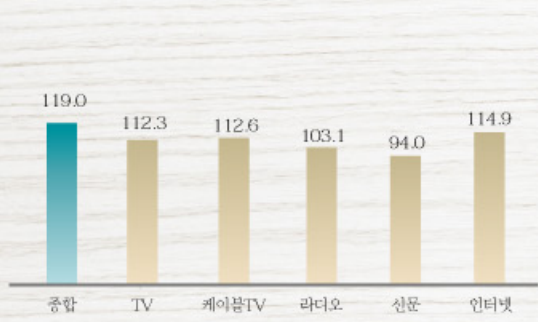
월별 KAI가 100을 넘을 경우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 이 의미는 100 미만은 광고비 감소가 예측됨을 의미한다.

이같은 결과는 봄철을 대비해 본격적인 광고 마케팅 활동이 전개되는 시기에 돌입했다는 뜻이라고 KOBACO측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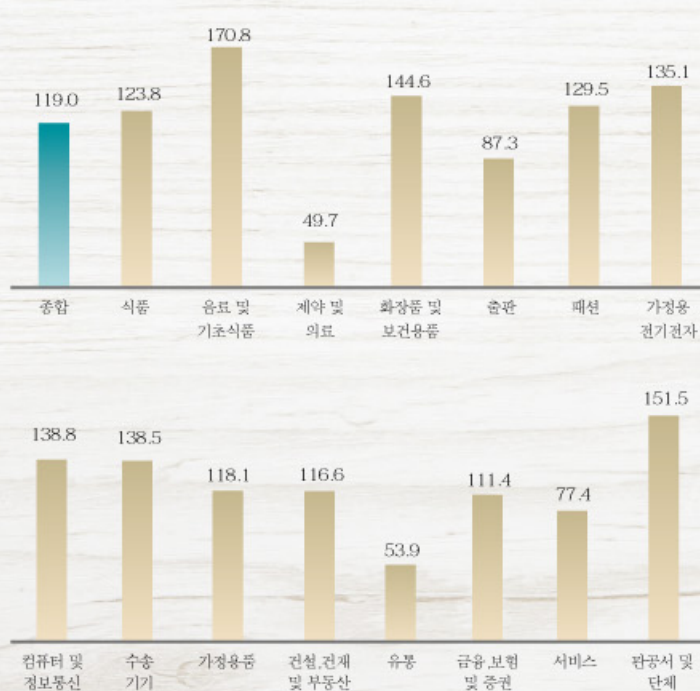
매체별로는 지상파TV(112.3), 케이블TV(112.6), 라디오(103.1), 인터넷(114.9), 신문(94.0)으로 조사됐으며, 업종별로는 음료 및 기초식품(170.8), 관광 및 단체(151.5), 화장품 및 보건용품(144.6), 컴퓨터 및 정보통신(138.8), 수송기기(138.5), 가정용 전기전자(135.1) 업종에서는 강세가 예상되지만, 제약 및 의료(49.7), 유통(53.9), 서비스(77.4), 출판(87.3) 업종은 약세가 전망됐다.

광고경기에측지수조사(KAI :Korea Advertising Index)는 방송광고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광고매체의 경기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광고산업 경기를 진단할 목적으로 매월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광고주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표 1> 매체별 광고경기 전망



<표 2> 업종별 광고경기 전망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12월 13일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인터넷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이 건전한 인터넷신문광고의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발표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인터넷 신문사 대표들과 정부 및 협회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온신협 김일홍 회장(좌)과 인신협의 민병호 회장(우)>

이 자리에서 민병호 인신협 회장은 "업계 스스로 노력을 통해 해법을 제시함에 따라 규제보다 자율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진정한 저널리즘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김일홍 온신협 회장은 "끊임없이 좋은 정보와 좋은 광고 계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윤리적 측면의 선언적 측면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신문 발전 기여, 이용자 권익 옹호, 광고주들의 효과 제고라는 가이드라인의 3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선정적 광고의 제한, 혐오 광고의 제한, 청소년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신협과 온신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인터넷신문광고에 대한 독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업계와 시민단체,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기구(가칭)도 발족, 자율규제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유계형 yoojh1999@kaa.or.kr